

전국 나무심기에 11억 달러 보조



▲ 2020년 인디애나주 시더 래피즈에 몰아친 폭풍 데레초로 부러진 나무들 모습, 사진=kwvl.com

미 정부가 전국 수백 곳에 달하는 지역사회의 극심한 더위를 완화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자연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을 돕도록 연방 자금 11억3,000만 달러를 배분할 계획이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러한 나무 심기 노력은 50개 주 전체의 소외된 지역에 집중될 예정이다.

톰 빌색 미 농무장관은 "우리는 기후 영향이란 측면에서 좀더 탄력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많은 도시에서 극심한 폭염과 그로 인한 사건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빌색 장관은 2020년 여름 극심한 폭풍 데레초로 수천 그루의 나무를 잃은 아이오와주 시더 래피즈의 사례를 집중 조명하면서 나무심기는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시더 래피즈의 나무 복원을 위해 6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 계획이다.

시더 래피즈 외에도 뉴욕,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들과 플로리다주 타폰 스프링스나 캔자스주 허친슨 같은 훨씬 더 작은 도시들도 나무심기 자금이 지원된다.

브렌다 멀로리 백악관 환경품질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많은 지역사회가 자연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했으며, 모든 나무심기 보조금은 소외되고 대표성이 낮은 지역사회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작년 '가구 소득 감소·빈곤율 급등'

지난해 미국 가구의 소득은 감소했고, 빈곤율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미국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연례 통계 자료집인 '미국의 수입: 2022'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미국 가구의 지난해 중위소득은 7만4천580달러로 전년보다 2.3% 감소했다. 미국 가구의 실질 중위 소득은 지난 2019년도에 7만8천250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하락했다.

또한 지난해 미국의 빈곤율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매년 식비와 주거비 등 생존에 필수적인 소



▲ 캘리포니아의 한 슈퍼마켓에서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AFP/뉴시스

비를 위한 소득 금액을 산정하고, 소득이 못미칠 경우 '빈곤'으로 분류한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산정한 4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는 3만4천518달러이다.

지난해 미국의 실질 빈곤율은 12.4%로 전년도 7.8%에서 크게 뛰어올랐다. 또한 빈곤 아동의 비율은 5.2%에서 12.4%로 두배 이상 늘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현금 지원을 지난해 종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1년의 경우 정부의 대대적인 현금 지원에 힘입어 실질 빈곤율이 9.2%에서 7.8%로 감소했다.

다만 정부의 근로 지원금과 주거지원을 제외한 공식 빈곤율은 11.5%로 전년도 수치에서 사실상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주, 음력설 공립학교 공휴일 지정

뉴욕주가 음력설을 공립학교 공휴일로 지정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계인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전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가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을 서명했다고 전했다.

그레이스 이 뉴욕주 하원의원 등이 함께 추진한 이 개정 법은 현행법에 규정된 공립학교의 공휴일 명단에 설날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 법에는 설날이 '중국어설' (Chinese New Year)이 아닌 '아시아 음력설' (Asian Lunar New Year)로 표기됐다.

김 의원은 "100만 명이 넘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앞으로 가족과 함께 설날을 기념하고, 문화 전통을 지킬 수



▲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운데가 론 김 의원 가족과 함께 공립학교의 음력설 공휴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들여보이고 있다. 사진=governor.ny.gov

있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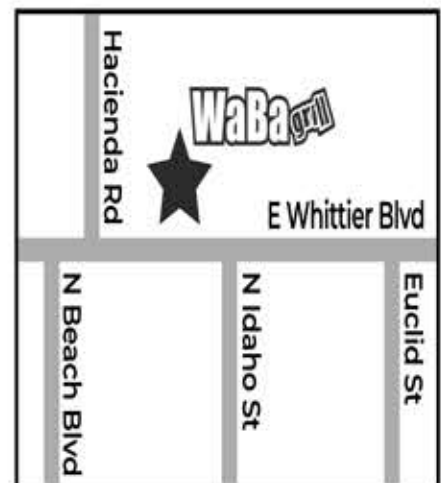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뉴욕시 차원에서 음력설을 공립학교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앞장섰다. 또 지난해 뉴욕주의회에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는 결의안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뉴욕의 아시아계 주민들은 팬데믹 기간 길거리와 지역사회에서 급증한 반아시아 정서에 시달렸다"며 "음력설의 공립학교 공휴일 지정은 포용적인 미국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9월, 음력설을 주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WaBa grill

La Habra Eat Smart, Be Healthy!



562.266.0011

<https://order.wabagrill.com/store/5966>

1351 W. Whittier Blvd. La Habra, CA 90631